■ 민주, 10·3 전대 당권 레이스 개막

丁·鄭·孫·秋 출마… 대선 전초전 방불

9일 컷오프… 10일까지 후보등록 후 선거운동
11~27일 시도당 개편대회… 합종연횡 물밑접촉

다음달 3일 개최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손학규 고문과 정세균 전 대표, 추미애 의원이 7일 공식 출마 선언에 나섰으며 정동영 의원은 8일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특히, 각 후보 진영에서는 컷 오프 통과에 이은 본선에서의 지도부 진입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총동원, 합종 연횡을 모색하고 있다.

손학규 고문은 이날 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들만의 나라가 아닌,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김대중 정신, 노무현 가치를 되살려 '잃어버린 600만표'를 반드시 되찾아오겠다"고 밝혔다.

잃어버린 600만표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후보가 얻었던 1200만여 표와 2007년 대선에서 패배한 정동영 후보가 받았던 600만여 표의 차이를 의미한다.

정세균 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개혁 진영이 승리하는 큰 판을 만들겠다"며 "보수 후보를 압도하는 민주 진영의 단일 후보를 만들어 내겠다"고 선언했다.

추미애 의원도 이날 "당원과 함께 뛰는 동행 정치를 통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천정배 의원, 장성민 전 의원 등도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며 486 진영에서는 백원우, 최재성 의원과 이인영 전 의원이 오는 10일까지 후보단일화에 나설 예정이어서 당권 판도에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동영, 손학규, 정세균 등 '빅3'를 제외한 남은 세 장의 최고위원 티켓을 놓고 각 후보들의 합종연횡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우선 정동영 의원은 비주류 및 쇄신연대 후보들과 연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정세균 전 대표는 친노·486 주자들과 연대 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류도 비주류도 아닌 손 고문은 각 후보 진영의 러브 콜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최종 연대 파트너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주선, 천정배, 김효석 의원 등과의 연대설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9일 열리는 컷 오프를 앞두고 각 후보 진영에서는 복잡한 연대 방정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인 3표라는 점에서 연대 파트너를 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동영, 손학규, 정세균 등 '빅 3 ' 진영에서는 자칫 컷 오프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본선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중소 후보들은 연대 전략에 따라 본선 진출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감안해 최상의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컷 오프를 통과한 9명을 대상으로 10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전당대회 직전까지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또 11일 광주를 시작으로, 27일 경기도까지 전국 시·도당 개편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방송사 토론회도 10차례 가량 열어 흥행몰이에 나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0·3 전당대회를 앞두고 컷오프(예비 경선)에 참여하기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7일 실시되면서 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7일 국회 정론관과 여의도당사에서 각각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정세균(왼쪽) 전 대표와 손학규 상임고문. /연합뉴스

민주 486, 10일까지 전대 후보 단일화

최재성·백원우·이인영 합의

민주당의 10월3일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486(4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인사들이 후보 등록일인 오는 10일까지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하면서 후보자 간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성·백원우 의원과 이인영 전 의원 등 전대 출마 의사를 밝힌 486 인사 3명은 7일 오전 486 인사 10여명과 조찬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 방침에 합의했다고 우상호 전 의원이 전했다.

단일화 방식으로는 오는 9일 1차 후보군 압축을 위해 실시되는 컷오프(예비경선)의 득표 순위 등을 감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번 전대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가 도입돼 486그룹의 진입장벽이 높아진 데 따른 돌파구 마련 차원으로 해석된다.

우 전 의원은 "민주당의 변화와 우리 세대의 가치를 내걸고 당원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호소하기 위해 단일후보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단일후보가 확정되면 486그룹 차원에서 공동 캠프를 꾸려 해당 인사의 지도부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민주, '盧 차명계좌' 발언 이인규 맹공

박지원 "국감 증인 신청 할 것"

민주당은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최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발언과 관련, 연일 이 전 부장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이 전 중수부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명계좌의 존재는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다"고 언급했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는 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법사위에서 국정감사 때 증인 신청을 하려고 하니 당당하게 나와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련한 중수부장답게 거짓말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직자가 공직수행시 알게 된 사실을 말할 수 없게 돼 있는 실정법을 엄연히 위반하고 있는데 왜 검찰에서 인지수사를 하지 않는지 굉장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전 중수부장이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다 보니 살아있는 권력을 치게 되더라"고 한 데 대해 "'살아있는 권력'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효석 민주 지도부 진입할까

지역 대의원 지지 가파른 상승세
합리적 리더십·미래주자 '긍정'

10·3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서고 있는 김효석 민주당 의원(담양·곡성·구례)의 선전 여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의원이 지도부에 입성하게 된다면 지역 민심을 반영하는 창구가 되는 것은 물론 지역 정치권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다소 취약했던 인지도를 극복하고 지지세를 확대하고 있어 지도부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근 광주·전남지역 대의원들의 지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수도권과 영남지역 대의원들도 김 의원 카드에 호감을 보이고 있어 당권 구도를 뒤흔들 '다크 호스'로 꼽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김 의원의 온화하면서도 합리적인 리더십과 민주당의 '미래주자'라는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당권 주자 가운데 유일한 경제 전문가인데다 그동안 보여준 민주개혁 세력 통합에 대한 일관된 행보도 '김효석 바람'의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 삶에 방점을 둔 생활정치를 내세운 김 의원의 탈 이념적 정치 성향에 대한 민주당 대의원들의 공감대도 점차 공고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9일 진행되는 후보 압축과 본선을 앞두고 각 후보 진영에서는 김 의원과의 연대를 타진하는 러브 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도부 진입을 위한 정치공학적 연대보다는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가치 지향적 연대를 모색한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제 전문가인 김 의원의 합리적인 리더십은 그동안 당내외에서 호평을 받아 왔으며 이번 전대에서도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다른 당권 주자군에 비해 정치적 참신성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한금융사태 정치쟁점화 되나

박지원 "경영권 분쟁 배후 영포라인" 지목

영호남 갈등 비화 조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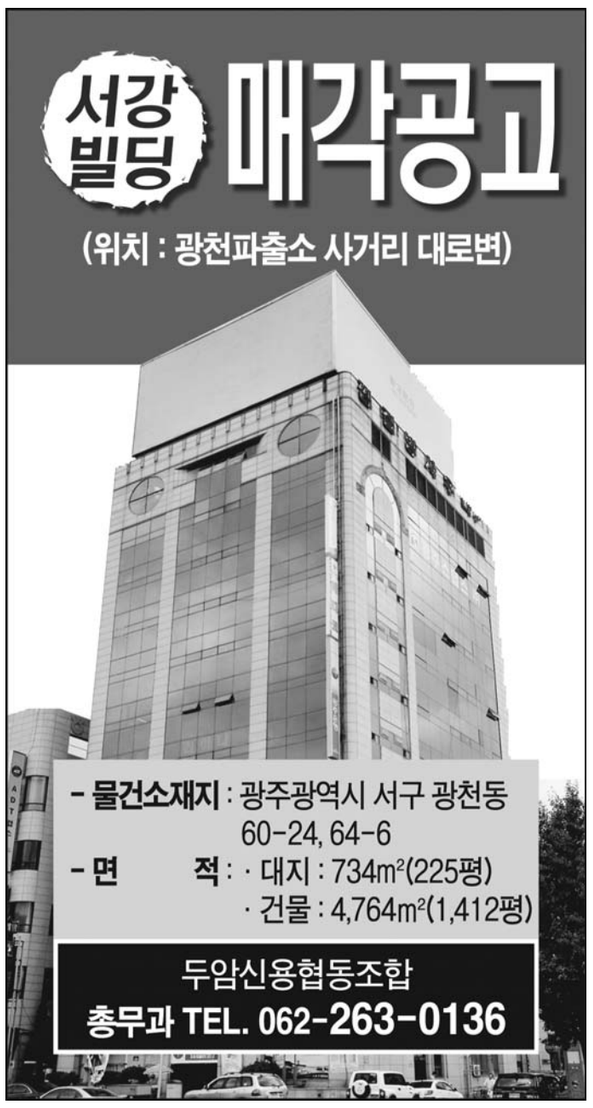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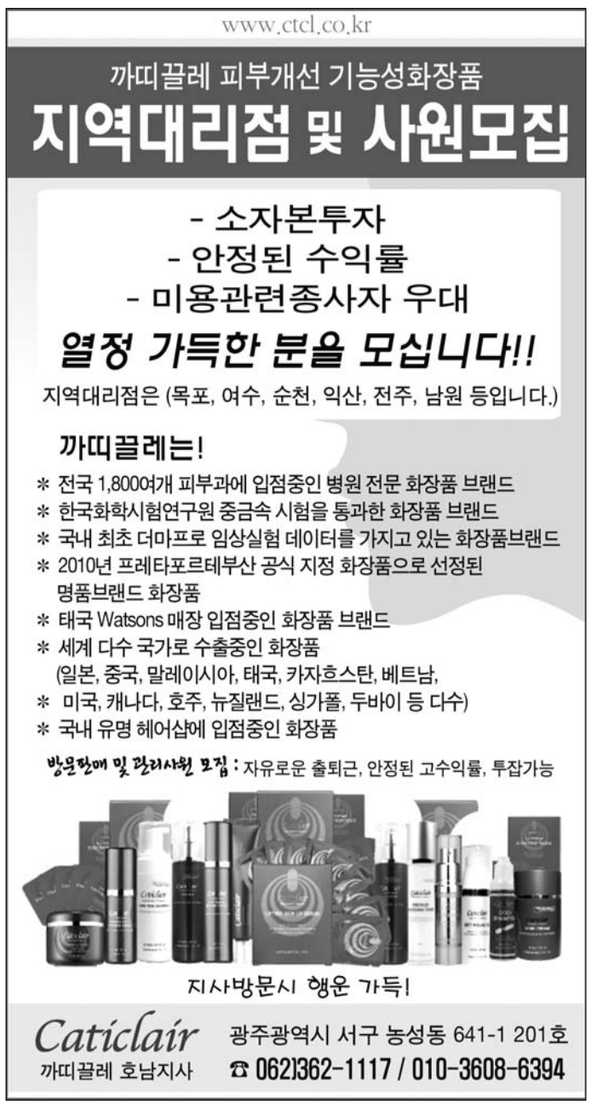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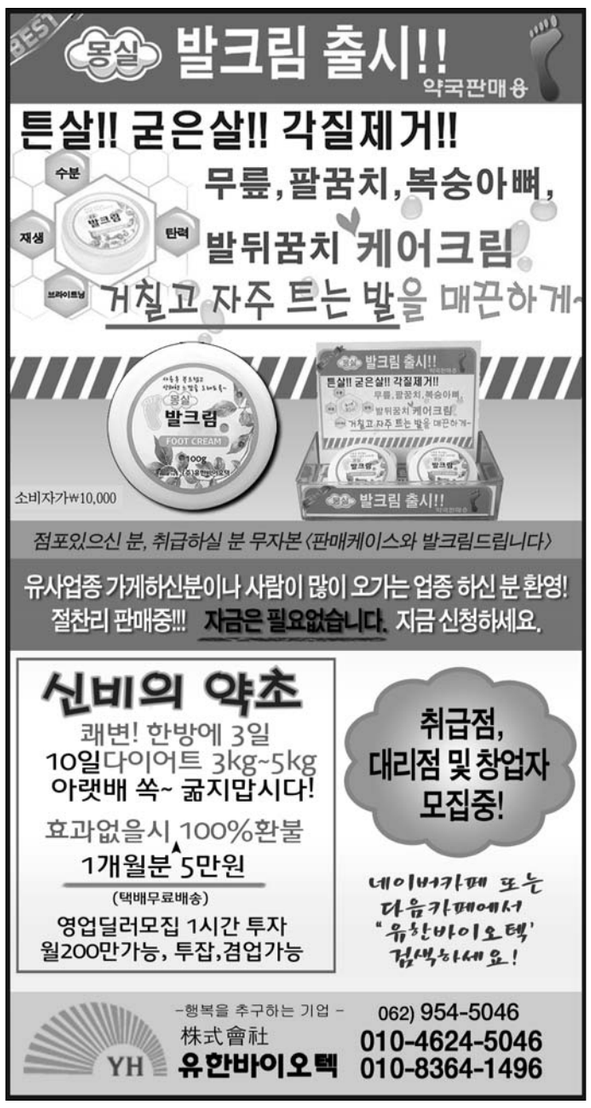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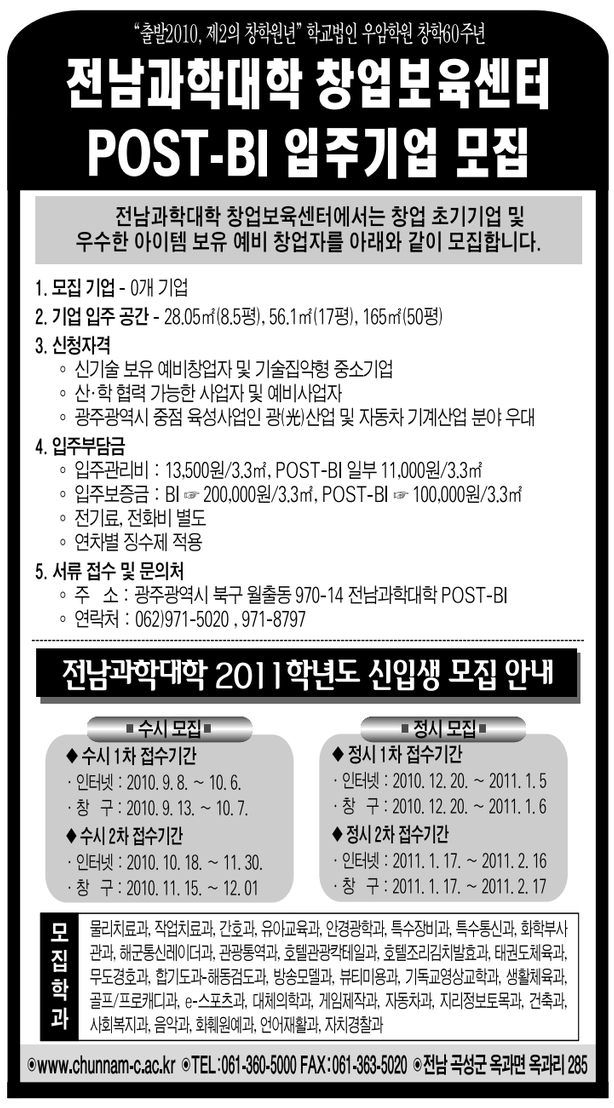
신한금융지주 경영권 분쟁사태와 관련,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가 배후로 영포라인을 지목하며 현정권 개입설을 제기하면서 정치 쟁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사태를 야기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경북 상주 출신인 반면 신상훈 신한금융사장은 전북 군산 출신이어서 영·호남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표는 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라 회장의 장기 연임을 위한 현 정권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일각의 의혹과 관련해 "현 정권에 와서 KB금융회장뿐 아니라 재일교포의 피땀 어린 투자로 이룬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영포(영일·포항)라인이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권 개입설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실 역대 군사정권에서도 금융계만은 손을 못 댔으나 현 정권에서는 상황이 다르다"며 "이번 사태는 KB금융에 이어 또 하나의 한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을 자기들(영포라인) 손아귀에 넣기 위한 일종의 권력투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호남 출신인 신상훈 신한금융사장이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민주당에 제보해 라 회장을 제거하려 했다는 주장은 엉터리"라고 단언한 뒤 "(민주당이)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지시했을 때 신 사장이 가까운 지인을 통해 연락을 해왔다"면서 "그때 '라 회장은 오늘의 신한을 이뤄낸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며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일종의 청탁을 3번이나 했던 분"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나아가 "어제 재일교포 주주분이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와 '우리의 피와 땀이 어린 돈을 (신한에) 투자했는데 지금 그 주식을 자식들에게 상속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다 라 회장이 한 것'이라는 제보도 있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